

전북연구원 보도자료

아름다운 산하 응비하는
생명의 삶터, 천년 전북!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▪문의 : 연구본부장 김진석 선임연구위원
(063-280-7111)

▪담당자 :전북학연구센터 박정민 부연구위원
(063-280-7171, 010-9938-6018)

보도시점 : 2020년 2월 12일(수)부터

전북학연구센터, 전북학총서와 전북학연구 발간

- 전북학 '학술연구 지원사업' 일환, 첫 연구성과물 3권(총서 2권, 연구 1권)
- 전북학총서 『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전북』, 『군산개항전사』, 전북학연구 창간호

[사진 및 영상자료 : 없음]

-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는 12일 전북지역을 이해하고 전북학 연구 진흥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된 ‘전북학 학술연구 지원사업’의 첫 연구성과물을 내놨다.
- 이번에 내놓은 연구성과물은 총 3권으로, 전북학총서 2권과 전북학연구 창간호 1권이다. 전북학총서는 1권 『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전북』과 2권 『군산개항전사』로 발간됐다.
- 2권의 전북학총서는 전북을 대상으로 인문·자연과학 분야의 학술 연구를 지원하여 전북학 연구를 진흥시키고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도 쉽게 전북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제작됐다. 특히, 1권 『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전북』에는 송하진 도지사의 발간사가 수록됐다.

- 광장근 군산대(역사철학부) 교수가 저술한 『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전북』은 고고학 유물과 옛 문헌을 토대로 전북이 고대부터 강과 바다에 둘러싸인 물류의 중심지였으며, 동철서염(東鐵西鹽)으로 상징되는 동부지역의 제철, 서부 해안권의 소금이 생산되는 무대였음을 소개하고 있다.
- 최혜주 한양대(비교역사문화연구소) 교수가 번역한 『군산개항전사』는 1899년 군산 개항 이전의 모습과 일제의 식민통치 실상을 잘 보여주는 자료로, 최 교수의 꼼꼼한 역주 작업을 통해 향후 한국의 근현대사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. 특히,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스님께서 제공해 책에 수록된 사진 자료는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.
- 『전북학연구』는 전북학에 관한 전문 학술지로, 지난해 3·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전북 독립운동가 기획특집 논문 3편, 일반 논문 6편이 수록됐다. 여기에는 전북지역을 대상으로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역사·문학·제도사를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연구주제가 담겼다.
- △을사늑약 이후 전북지역 유생 습재 최제학의 항일운동 △임피 출신 이인식의 독립운동 △전북출신 독립운동가 고평의 생애와 독립운동 △백제의 부흥운동과 전북지역의 역할 △전북지역 유람일기의 현황과 활용 △갑오~광무 개혁기 감옥의 변화와 인권 △개항기 군산주재 일본영사관분관의 설치와 주임서기생의 활동 △일제시대 군산 지역사회의 비행장 건설 여론 형성 과정 △1980년대 전북 문학의 운동성 분야다.

- 김동영 전북학연구센터장은 “센터에서는 매년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통해 연구총서와 학술지를 발간할 것이다”면서 “올해에는 이를 더욱 확대해 대중서, 연구서, 번역서, 학술서 총 4권을 제작해 전북학 제반 학문 분야를 조망해 나갈 계획이다”고 밝혔다.

■ 자료사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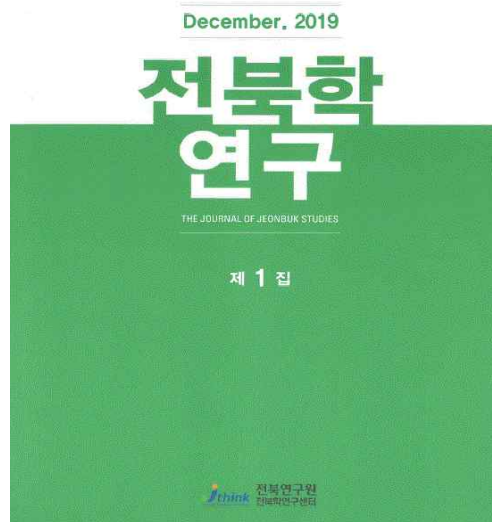


전북학총서 1_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전북



전북학총서 2_군산개항전사

ISSN 2713-5772



전북학연구